

활짝 핀 구례 산수유…봄을 알리다



14일 구례군 산동면 상위마을에서 한 관광객이 봄의 전령인 산수유꽃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교조 광주지부

장학재단 만들었다

성과급 적립 재원 마련

광주에서 전교조가 전국 최초로 성과급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4일 성과급 제도를 반대하는 의미로 교사들의 성과급을 적립해 '광주참고 육장학재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장학기금은 성과급 반납운동을 하면서 모든 1억원과 1990년 독일에 거주하던 한 노동자가 기부한 1700만

원, 조합원 적립금(1인당 매월 100원) 등으로 마련했다. 기본자산은 2억9400여만원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앞으로 조합원 기부와 외부 기탁금 등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장학금은 위기개정 학생과 비정규직 자녀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태 광주지부장은 "장학 사업뿐만 아니라 사제동행 봉사단, 상담 치유 힐링복지센터, 나눔이 있는 시(時) 콘서트, 평화통일 멘토기행 등을 통한 교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시의회 '낮뜨거운 동료애'

동료의원 폭행 주윤식 의원 징계안 부결

시민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순천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폭행한 주윤식 의원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키면서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14일 서정진 의원 등 동료의원 2명을 폭행, 검찰로부터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한 주 의원(출석정지 10일)과 주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서 의원(공개경고) 등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품위손상과 시의회 위상 실증 등을 내세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최종 징계 확정을 위해 이날 전체 20명의 의원이 참가한 징계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주 의원은 찬성 6표, 반대 12표, 기권 2표로, 서 의원은 찬성 3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모두 부결됐다. 정영태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 징계안을 의원들이 거부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의 징계 부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80여일이 지난도록 징계를 미뤘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서 의원도 징계하기로 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더니 결국 '봐주기 시간끌기'로 시민을 기만했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민주당 중앙당원 리위가 이번 폭행사건과 관련, 민주당 소속인 주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을 의결한 데 대해 의원들이 동정심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새벽 0시 30분께 순천시내 도로에서 서 의원을 폭행한 데 이어 서 의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찾아온 신도 의원도 폭행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일부 공간 도색작업과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비 등 5000만원의 예산이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자 예결위 간사인 서 의원에게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경기자 ejkim@

관급공사 보증처리 잘못…여수시 공무원 1억 변상

여수시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1억원을 변상하게 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6급)씨가 관급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비 보증 처리를 잘못해 1억원의 공금 손실을 입혔으며 이를 변상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5월 소경도 호

안도로 외부간道 시설공사를 맡은 A사에 8월까지 완공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2억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공사 중단 때 되돌려받기 위한 보증기간 6개월짜리 보증서를 A사로부터 받아놓았다.

그러나 A사가 도중에 공사를 포기, 이미 지급한 공사비 중 1억원을 시에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자 여수시가 A사의 보증을 섰던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보증보험사 측은 공사 종단이 보증서 효력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만큼 1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시 박씨가 보증 문제 등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31사단·해군 3함대 철통경계 공조

'합동전술토의' 열고 서남해안·해상 감시 강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남해안과 해상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31사단(사단장 박병기 소장)과 해군 3함대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육군 31사단과 해군 3함대 사령부는 14일 3함대사령부 브리핑룸에서 합동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합동전술토의를 열었다.

이날 전술토의에는 육군 31사단장과 3함대 사령관, 주요 참모, 작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

석해 해상·해안 경계작전 정보교류를 비롯, 해군과 육군의 감시체계 공동방안 등을 논의했다.

영광원전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세부적인 작전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평시에도 작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 부대는 전술토의를 시작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항만청 등 안보 관련 유관기관과도 전술토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

국내 연구진이 암니즈를 밝혀내 수년 내 개인별로 특화된 암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KAIST는 물리학과 윤태영 교수와 생명과학과 허원도 교수 공동연구팀이 암 조직에 존재하는 밭암 단백질의 특성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상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암 환자의 개인별 밭암 기전을 분석해 맞춤형 암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영 교수는 "이번 기술은 한 개의 분자 수준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암 환자 단백질 시료만으로도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롭 06시 44분
해진 18시 40분
달롭 08시 21분
달진 22시 10분

감기 조심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 크니 건강관리 유의하세요.

광 주	맑음	-1/15°C
목 포	맑음	-1/12°C
여 수	맑음	5/13°C
나 주	맑음	-3/15°C
완 도	맑음	0/13°C
구 레	맑음	-2/15°C
강 진	맑음	-3/13°C
해 남	맑음	-3/14°C
장 흥	맑음	-2/14°C
순 천	맑음	-3/11°C
영 광	맑음	-1/11°C
전 도	맑음	0/14°C
전 주	맑음	-2/10°C
군 산	맑음	-2/14°C
남 원	맑음	2/8°C
흑 산	맑음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김기자수	뇌졸증자수
서해	서부 일비단	서~북서	0.5~1.0m	보통	매우높음	높음
남해	서부 일비단	북서~북	0.5~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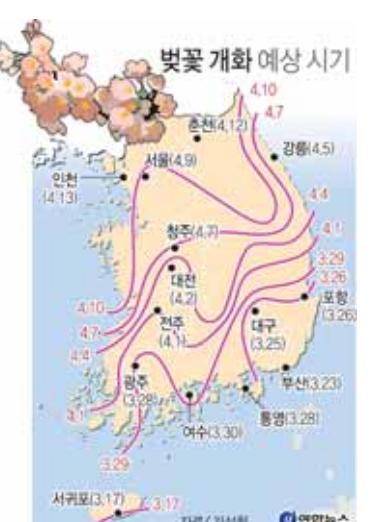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단	남서~서	0.5m	목포	04:22 09:27
남해	서부 일비단	남서~서	0.5~1.0m		21:40

◇주간날씨	날짜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날씨	0/17	3/15	9/17	7/18	6/16	3/12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광주 벚꽃 28일 핀다

평년보다 3일 빨라



광주·전남 지역에 벚꽃이 평년보다 일찍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8일 광주를 시작으로 여수와 완도 30일, 목포는 4월 3일에 벚꽃이 핀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년보다 3일, 지난해보다 9일 정도 빠른 것이다.

벚꽃의 절정 시기는 만개한 후 1주일 뒤로, 광주 4월4일, 여수와 완도 4월6일, 목포는 4월10일로 전망된다.

기상 관계자는 "3월 상순 기온이 6.7도로 평년(5.2도)보다 높고, 중순과 하순 기온도 각각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해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주말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17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서민 침해사범 특별단속

광주지검 '합동 수사부' 출범

광주지방검찰청은 14일 서민 생활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검찰 합동수사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의 시행방침에 따라

출범한 합동수사부는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 단계·유사수신, 전화금융사기, 사행행위, 서민상대 갈취 등 사건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수사부는 김주원 광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부장으로 형사·강력부 검사 6명, 수사사무관 1명, 수사관 17명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윤현식기자 chadol@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쭉!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만점 포켓북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시성어백과

내신·입시·한자동역감정시험 및 국가적 기출문제 표지
알짜배기 고시성어백과 값 8,500원

* 알짜배기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 상황별 핵심 문법과 활용단어로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 교육부 지정 필수 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팀과 응용회화로 구성

* 한자능력 검정 시험 1~2급 3~4급 5~8급

■ 진급승부 한자능력 검정 시험 시리즈